

FEBRUARY 2022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2021

부산체육
다담



부산광역시체육회

47873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TEL. 051. 500. 7900 / FAX. 051. 505. 6306

Copyright © 2014 Busan Sport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본 메일은 발신전용으로 회신이 되지 않습니다.

CONTENTS



머리말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

새해를 맞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부산광역시체육회가 되겠습니다



이슈 & 포커스

제32회 도쿄 올림픽경기대회 참가

파고(波高)를 넘어 도쿄를 향해!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치 운영 기대

지방체육회 법인화 추진



대한민국 체육, 새로운 100년을 꿈꾸다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에 앞장서다

2021 부·울·경 메가스포츠 한마당 성황리에 개최

새해를 맞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부산광역시체육회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

지난 2016년 3월을 시작으로 2022년 1월까지 6주년을 바라보고 있는 <부산체육>은 어엿한 체육 소식지로 자리매김하고, 시민과 체육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체육을 통해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체육 특집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2회 도쿄 올림픽경기대회 참가

파고(波高)를 넘어 도쿄를 향해!

근대 올림픽경기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는 제32회 도쿄 올림픽경기대회가 2021년 7월 23일(금) 개막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참가를 결정한 국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선수들의 안전과 건강에 만전을 기했다. 대한민국은 29개 종목, 354명(선수 232명, 임원 122명)의 국가대표 선수단을 파견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전원은 2021년 4월 29일 (목)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또한 방역수칙에 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선수들을 교육하고, 대회 기간에 방역 전문의가 동행하는 등 선수단의 안전을 관리했다.



2021년 7월 8일(목) 서울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제32회 도쿄 올림픽경기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이 개최되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노력과 의지로 훈련에 매진해 온 대한민국 선수단은 결단식을 통해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장인화 선수단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안고 경기장 안에서는 정정당당하게 멋진 승부를 펼치고, 경기장 밖에서는 코로나19 방역 대책 등을 완벽히 준수하여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힘찬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부산소속 선수단은 펜싱(송세라, 마세건), 요트(박건우, 조성민, 하지민, 조원우), 근대5종(김세희), 사이클(이혜진), 수영(우하람), 배드민턴(허광희, 서승재, 안세영, 김가은), 핸드볼(강재원, 류은희, 주희, 강은혜, 심해인, 김진이, 박준희), 농구(안혜지, 진안), 야구(박세웅), 축구(안준수, 김진규) 그리고 신설종목인 가라테(박희준)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체육 특집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치 운영 기대

지방체육회 법인화 추진



지난 2020년 12월 8일(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다.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1년 6월 9일(수)부터 시행되었으며 지방체육회는 법 시행일 전날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한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245개 지방체육회의 원활한 법인 설립을 위해 법인 설립 준비위원회 표준 규정 및 표준 정관을 마련하고 법인 설립 매뉴얼, 각종 영상 교육자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법인화라는 새 옷을 입게 된 지방체육회는 더욱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민간과 전문체육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재정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통해 지방체육회의 안정화와 스포츠 선진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체육, 새로운 100년을 꿈꾸다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코로나19로 2년 만에 개최된 제102회 전국체육대회가 마무리되었다. 부산 선수단은 38개 종목에 선수 436명, 임원 344명 등 총 780명이 참가했으며 주 개최지인 구미시를 중심으로 경상북도 일원에서 펼쳐졌다. 안전한 경기 진행을 위해 무관중으로 결정했으며 고등부만 참가했다.

대회 결과 부산 선수단은 명승부를 펼치며 대부분의 종목에서 예상 성적을 웃돌거나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메달 성적은 2021년 9월 사전 경기로 진행된 부산 대표 KT의 여자 하키 일반부 금메달도 포함되어 금메달 16개, 은메달 20개, 동메달 29개로 총 65개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수영과 에어로빅이 가장 많은 금메달을 획득했다. 남자 역도 89kg급에서는 김근현(부산체육고등학교)이 용상에서 금메달을, 여자 역도 76kg급의 김자현(서부산공업고등학교)이 은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육상은 남녀 장대높이뛰기에서 모두 메달을 목에 걸었다. 자전거 단체 스프린트의 이찬영 외 3명 (부산체육고등학교), 우수 김현균(강서고등학교), 조정 더블스컬의 류준(동아공업고등학교)과 이승준(동아공업고등학교), 여자 유도 52kg급 정나리(부산체육고등학교)도 금메달을 따며 부산 선수단의 명성을 널리 알렸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부산 선수단이 무사히 대회를 마무리해서 기쁘다”며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준 선수들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시민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2022년 치러질 제103회 전국체육대회는 울산광역시에서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길 기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체육 특집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에 앞장서다

2021 부·울·경 메가스포츠 한마당 성황리에 개최



2021 부·울·경 메가스포츠 한마당이 지난 11월 13일(토) 개최됐다. 대회는 아시아드주경기장과 APEC 나루공원, 삼락공원 등에서 펼쳐졌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전국 최초의 권역별 스포츠 이벤트로 현장의 열기는 뜨거웠고, 3개의 도시가 화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개회식에는 각 시도 선수단 및 주요 내빈 150여 명이 참석했고 부산광역시 에어로빅 시범단의 축하 공연으로 막을 열었다. 종목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야구, 조정, 카누, 테니스, 파크골프 총 7개로 선정했다. 비경쟁 친선 경기로 종합 점수 시상은 하지 않았으며 부산은 공감상을, 울산은 우정상을, 경남은 화합상을 수상하며 마무리했다.



메가스�포츠 한마당

11월 13일(토요일) 09:00

체육회 | 주관 |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상공회의소 BNU 부산

3기 대선주자

2021 부·울·경 메가스�포츠 한마당



2021

부·울·경 메가스�포츠 한마당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부산과 울산, 경남 체육 동호인들의 단합으로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대회를 치렀다”며 “이번 대회의 모범적인 참여가 동남권 지역체육의 새로운 발걸음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1년을 시작으로 부산광역시체육회, 경상남도체육회, 울산광역시체육회는 각 지역을 순회하며 메가스�포츠 한마당을 개최한다. 2022년에는 경상남도에서 열릴 예정이며, 2023년에는 울산광역시에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체육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고 하나의 경제공동체가 되어 스포츠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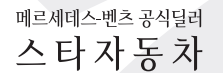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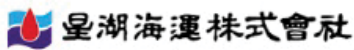
부·울·경 메가스�포츠 한마당이 공동체 형성의 구심점이 되어 체육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 관광 등 폭넓은 분야로 확대되기를 바라며, 체육계의 힘찬 비상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기다려진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체육 특집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
부산체육을
담다

FEBRUARY 2022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멤버
BUSAN SPORTS COUNCIL GOLD MEMBER



47873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TEL. 051. 500. 7900 / FAX. 051. 505. 6306

Copyright © 2014 Busan Sport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본 메일은 발신전용으로 회신이 되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BUSAN SPORTS COUNCIL